

제목: "성도 안에 있는 큰 능력"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18절

성도들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울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 안에 있다고 위로합니다. 또한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면 옆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능력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자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을 말씀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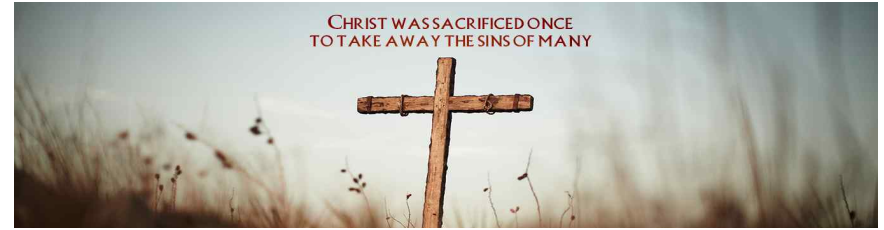
1. 항상 벌떡 _____고 합니다.
2. _____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3. 은혜가 _____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혁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혁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4장 7-18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2 Corinthians 4 7-18 신약 289 페이지 Presider
- 말씀 "성도 안에 있는 큰 능력" 김성민 목사
Message A Strength of believers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보라 너는 두려워 말고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당: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겠지)

벌써 7월이다. 동부 필라델피아에 살 때에는 9월 첫 주가 되면 긴팔을 입어야 했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여름도 곧 지나간다. 우리가 사는 이곳의 올해 여름은 아직 그리 덥지도 않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여름의 하반기로 곧 접어들고 4개월이 지나면 크리스마스라고 들썩일 것이다. 그렇게 인생은 흘러가는가 보다. 그래서 그런지 죽기 직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몇 가지 중 하나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나중에 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생의 시간이 하도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과연 내가 가진 전부를 다 사용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아끼고 아끼다가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러면 가장 알뜰하게 살다가 가는 방법을 없을까? 그것을 안다면 조금 더 밝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을 멀리 내다 볼 수 없게 하셨다. 사도바울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깨달았던 깨달음은 고린도후서 전반에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 하도록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한다.

만일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다면 아마도 내가 내 인생의 조정관을 내가 잡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여 살 것이다. 하지만 그 최선은 하나님의 뜻과는 먼 거리에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멀리 볼 수 없고 알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축복이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서로에게 물어가며 행복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그 때가 되어 후회와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깊은 신앙의 성숙으로 인도하신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지만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하는 그리스도의 계절들인 것이다.

하나님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시오라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03편 14-15절)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인생이 지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주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다. 슬픈 일이지만 그 사람 개인의 삶을 자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다면 과연 의미 있는 정치인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고 있다. 과연 준비된 죽음이었을까?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올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다. 추운 시간을 위하여 긴팔 옷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추워질 수 있는 상상하지 못할 세상의 온도를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만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 전부를 다 태워서 드리고자 할 때에 그 인생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오늘은 Mizumi Buffet 에서 (13500 SW Pacific Hwy #17, Tigard, OR 97223) 식사합니다. 장소는 H-Mart 옆 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개척교회에 새로이 세례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7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 씩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